무상급식 식품비 단가 인상

전북교육청, 전북자치도와 '제2회 교육행정협의회'

200원 인상 합의… 재원은 도 · 교육청 공동 부담

전북교육청,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비 26억 추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4일 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제2회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용태 · 김명지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육행정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 ·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감과 도지사가 공동의장으로 참여해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다.

이날 합의된 안건은 △도청 전입금 2,175억원 2025년 본예산 편성 △2025년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 및 도립여성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분담률 조정 △학생 해외연수 지원 및 국제교류 협력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숙사생 조?석식비 확대 등 총 6건이다.

특히 학교 무상급식비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 영향으로 크게 상승한 식자재 물가에 대처해 학생들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2025년부터 식품비 단가를 2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재원은 전북교육청과 전북자치도가 공동 부담한다.

학교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 분담률은 전북교육청이 약 26억원 추가 지원을 결정해 도내에서 생산된 다양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학교 식탁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학생 해외연수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및 국제교류 추진 정보 공유 △도립여성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기준 일원화 △취약계층 조?석식비 지원 통합 등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양 기관 모두가 우선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도청 ·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교육행정협의회가 전북교육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협의회는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교육행정협의회가 도와 교육청, 도의회 간 든든한 정책 동반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5년도 무상급식비 예산관 관련해, 양 기관이 합의는 했지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한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 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제2회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었다.

전북대, '필링 코리아' 프로그램 운영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 대학 학생 등 총 21명 초청 진행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오는 10일까지 '필링 코리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Temasek Polytechnic)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 21명을 초청해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참여 학생들 모두 디자인 학부를 전공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 문화와 예술, 현대 산업을 체험할 예정이다.

한국어 수업을 시작으로 한복 체험, 비빔밥 체험, 임실 필봉 문화촌에서의 농악 체험, 현대자동차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깊이 경험하며, 전북 지역의 문화적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팔복예술공장과 전주 콘텐츠 페어에 참여해 지역 예술과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갖는다. 일정의 마지막은 서울 투어로, 한국의 수도에서의 다양한 문화 경험도 예정돼 있다.

전북대학교 조화림 국제처장은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 대학 학생들의 필링 코리아 프로그램 참여는 매우 기쁜 일이며,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우리 대학과 지역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창업지원단, 호남 창업기업 해외 판로 확보

창업기업-베트남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진행

3개 기업 23만 달러 수출 계약, 기술제휴 등 성과 거둬

'2024 GLOBAL BUSINESS NETWORKING SHOWCASE'를 통해 호남권 창업기업 3개 기업이 23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4일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국경수)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베트남 현지에서 개최된 이번 프로그램에 호남권 창업기업 10개사와 베트남 기업 대표 및 바이어 78명이 참여해 상호 간 기업을 소개하고, 분야별 그룹 미팅을 통해 현지 대표들과 긴밀한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주미당, ㈜일월종가, 미나페이 등 3개 기업이 23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알고스, 파인푸드랩, 미나페이 등 3개 기업이 베트남 기업과 기술 제휴, OEM 등의 업무협약을 맺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대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의 Tech to Global 해외투자 IR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올해 사업에 선정된 5개 실험실과 전북대 TMC 사업단 소속 3개 실험실 및 실험실 특화 창업 중심 대학의 3개 실험실 창업기업이 베트남 현지 투자 IR 발표를 통해 총 15건의 투자의향서를 확보하는 등 교원 창업 기업들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더불어, 베트남 현지 국내 기업 제품 전시관 '코레투비엣(KORETOVIET)' 방문과 SECC에서 개최된 글로벌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관 등을 통해 현지 시장 조사의 기회도 제공했다.

국경수 단장은 "창업지원단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구축한 호치민과의 협업 체계를 활용해 국내 창업기업 및 실험실 창업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교육연수원

중등 교장 리더십 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민완성)은 4일 전주평화의전당 유항검홀에서 중등 교장 리더십 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내 중등 교장 2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연수는 'AIDT(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학교현장의 변화', '소비트렌드로 미리보는 2025' 강연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이해하고,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전북중등교장연합회와 함께한 교육감 공감 대화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충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빠르게 변화하는 학교 현장에서 교장선생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소통과 협력으로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위해 함께 나가자"고 말했다.

연수를 주관한 이혜경 교수부장은 "중등 교장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지난 1일 하림미션홀에서 '2024 JJ Techno Festa'를 개최했다. 사진은 박진배 총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막 오른 AI 시대와 미래 인재'

전주대, 'JJ Techno Festa' 성황리 마쳐

김도연 이사장 특강 · 경진대회 작품 전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일 하림미션홀에서 '2024 JJ Techno Festa'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4년도 LINC3.0 사업 성과보고회 △전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이자 현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김도연 이사장의 명사특강 △산학협력 20주년 기념 공로자 시상 △우수 가족기업 명패 증정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현장실습수기 공모전, 창업동아리 경진대회의 우수작품 전시 및 시상식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영상 축사를 시작으로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의 김도연 이사장의 '막 오른 인공지능(AI) 시대 그리고 미래 인재'라는 주제의 명사특강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박진배 총장은 "지난 20년 동안 지역의 산학협력을 선도하며 성장한 전주대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맞춰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14일 시행 수능 준비 만전 기해달라"

서거석 교육감, 직원조회서… 행감 · 예산편성 직원들도 격려

서거석 교육감은 4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열린 11월 직원조회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준비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행감은 지난 1년간의 주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됐는지 점검하는 자리"라면서 "1년 동안 거둔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아 전북교육의 신뢰를 얻고, 또 정책 추진에 동력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편성은 내년 사업 목표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라며 "무엇을 더할 것인지, 또 어떤 일을 덜어내야 할 것인지, 특히 힘줘야 할 역점 사업은 무엇인지 선정해서 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서 교육감은 "딱 한 가지 꼭 신경 써야 할 게 있다면 그것은 청렴"이라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모든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고등학교는 지난 2일 대강당에서 '2024 노송 아카데미 9회차' 행사를 개최했다.

2028 대입 로드맵 제시

전주고, '2024 노송 아카데미 9회차' 성료

전주고등학교(교장 라구한)는 지난 2일 대강당에서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노송 아카데미 9회차'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주고의 교육적 특성과 자율형 공립고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이날 전고 · 북중 총동창회장학회(이사장 김동수)에서 도내 중학교 3학년 94명에 1인당 30만원씩 총 2,8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는 지역사회 발전과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 서거석 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전주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로서의 장점과 교육적 경쟁력을 강조했다.

라구한 교장은 "이번 행사는 중3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2028년 대학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전주고등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성공적 대학 진학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JJ캡스톤디자인 경진 입상

전주기전대, '대상' 수상

전주기전대학 LINC3.0 사업단 치유농업과 '어울林(림)' 팀이 2024학년도 JJ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4일 전주기전대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전주비전대, 군장대, 전주대 등 지역 대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대학의 연구성과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이에 전주기전대학 응급구조과 'A+잡았죠'팀은 병원 및 응급 현장에서 효율적인 사용을 돕는 EKG 선정리박스를 개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호텔제과제빵과, 작업치료과, 반려동물과 팀이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최우수상' 수상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전주대학교에서 진행된 '2024 LINC 3.0 JJ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 참가한 기계과 '스마트인원체크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스마트인원체크팀'의 '센서기반 스마트 인원체크'는 적외선 센서를 활용해 사람의 출입을 감지하고 인원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을 버스 모형에 적용해 탑승 인원수에 따라 디스플레이를 통해 타는 인원수, 현재 탑승 중인 인원수, 하차 인원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한편 전주비전대는 이 대회에서 우수상 1팀, 장려상 3팀을 포함 총 5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입학처 홈페이지

과기부 웹 접근성 품질인증

전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는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웹 접근성 우수 사이트임을 인증하는 제도로, 관련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WA(Web Accessibility)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4일 전주대에 따르면 이번 품질인증 획득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전형 이해도 제고와 입시 정보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근호 전주대 입학처장은 "이번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은 모든 학생들이 공정하게 입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전주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입학 전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기업 15곳 최종 선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024년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선발평가를 통해 최종 15개사를 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전북형 창업패키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산업에서 유망한 기술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5년 이내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9월 23일부터 3주간 진행된 모집에서 총 126개사가 신청, 약 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심사는 시장 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평가단이 맡아 서면 및 발표의 2단계 과정을 거쳤으며, 기술성, 시장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15개사는 협약 기간 동안 △시제품 제작, △인력 고용,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을 위해 최대 6,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유통 · 판로 · 투자 · 수출 등 프로그램이 지원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